東大新聞

基均 明 趙 發編印主
晟道 孫 幹 人兼 行輯刷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③3130—9

(每週金曜日發行) 六個月分·200원

今週一言

信仰은 人生의 힘이다
—<톨스토이>—

國內서 雪糖나무를 發見

實驗끝에 原糖採取成功

氣候와 土壤의 制約으로 糖源作物의 栽培가 不可能한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外貨를 消費하면서도 原糖의 需給事情이 좋지 않아 食生活에 커다란 위협을 免치 못하여 왔다。그런데 이번에 본교 林學科 敎授들은 60年부터 4個年에 걸쳐 糖源樹種에서 糖源作物을 實驗하면 끝에 原糖採取를 지난2月 단풍나무에서 原糖採取에 成功、「시럽」製造實驗에 成功하여 본교 林學科 敎授들은 糖源樹種에서 原糖採取를 實驗하면 끝에

海賊版文化의危機

李哲範

지금 우리나라가 當面한 問題中에서 가장 時急한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않고 海賊版文化의危機를 들겠다。勿論따지면 하나부터 열가지 다 급하다。쌀問題, 失業者問題, 統一, 韓日會談等, 民生苦解決에서부터 祖國의 近代化란 엄청난 計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問題투성이다。그意慾과 野心에찬 政治家는 우렁창 口號소 높이지르고, 國民들은 모두가 그問題안에 달팽이처럼 들어가있다。달팽이처럼 들어앉아서 「뉴기니아」原始人의 勞勛을 부러워하고 있다。

主體性살려야할 文化

=海賊版文化는 精神社會 파괴=

意慾과 野心의 口號론 안돼

阿含經에서본 相의 滅法

<上> 洪 永 義

가파른 考試에의 길

懇談會를通해본摸索

考試合格!

그것은 언제인가부터 우리네에게 굉장한 出世의 象徵처럼 되어오고 있었다。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들의 出世의 門이 열리기를 눈을겨울게 기다리는 애절한 이야기며, 考試에 얽힌 「로맨스」며, 우리네 주위에는 「考試」를 둘레하여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다。考試合格率은 남다른 忍苦의 努力을 뒷받침하고 있다。考試合格率은 눈의기위의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參席者>

鄭雲(敎授) 申相斗(考試合格者)
高英洙(法4) 漢英(法4)

▲司會。金善興(法政大學生會長)
▲速記。尹靑光(東大新聞編輯部長)

<附。英語단어記憶法>

記憶術

梁柱東

東國藥房

江華

新學期를 맞이하여 江華出身新入生 歡迎會및 正期總會를 열고자하오니 江華學友는 全員參席하여주시길 바랍니다

記

一、日時 一九六四年四月十一日午後二時
一、場所 第一体育館 앞
一、會費 五拾원 (新入生除外)

全高

學友會를 左記와같이 갖고저하오니 會員의 參席을 바랍니다

日時 四月十四日下午2時(火)
場所 本校校庭(噴水앞)

南星

學友會를 다음과같이 開催하오니 全員參席을바랍니다

日時 四月十二日(日) 午前9시30分
場所 本大校庭(噴水앞)
會費 百원

江陵

在東大 本學友會 定期總會및 新入生환영회를 다음과같이 開催하오니 全會員의 參席을바랍。

▲日時=四月十一日(十二)上午10時
▲集合場所=東友塔
▲會費=100원 (신입생없음)

詩壇 4輯

鄭孔采小詩集「夜間交通」外4篇
허유小詩集「葉書」外4篇

詩作

金圭泰 金淑子 李炯基 李仁秀
黃錦燦 李相和 咸東鮮 金善英
申東曄 鄭婉永 宋晳來 全基洙
閔暎崔 元金正淑 劉庚煥
姜桂淳 尹惠昇 朴根瑛 朴英淑 鄭在完 永東 Frank, Fagan

프로이드의 藝術論에 對하여……金相一
詩文學에있어서의 Libido論序……馬鍾基

靑雲出版社刊 <값30원>

感慨式精讀,主觀式暗記

入山,圖書館派 보다 受講派가 有利

標語및포스타·作文현상모집

금번 학생생활지도 위원실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직원및 교우생에게 내원생활의 계몽과 실천을 도모하도록 하기위하여 포스터 그리고 작문을 아래와같이 모집하오니 많은학생의 응모를 바랍니다

<목 차>
1、표 어
2、포 스 타
3、작 문 (二百字原稿紙10枚~15枚限)

△모집기간
一九六四年四月十日부터
一九六四年四月二十五日까지

△시 상
1등……3명
2등……3명
3등……3명、가작……6명

△제 출 처
동국대학생생활지도위원실 (但모집된포스터、포스타、작문은 반환치않음)

一九六四년四월九일
동국대 학생생활지도 위원실 실장백

紳士의 멋은「헤어스타일」로

構內理髮館

一流技術陣을 確保하고 市中價格의 切半으로 奉仕

(本館二層東便)

詩書展作品募集

금번「詩鄕同人會」에서는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詩書展 作品을 모집하오니 會員은 물론 뜻있는 분들의 많은 應募 있기를 바랍니다。

記

1, 篇數—1人當2篇以內
2, 마감—4月16日(木)까지
3, 作品提出處—東大新聞社文化部
※皮封에 반드시「詩書展應募作品」이라고朱書할것。
4, 接受된 原稿는 一切 返還치않음。

4月9日
詩鄕同人會

大學과 運動選手

李昌載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大學體育은 6·25事變을 요약하여 말할수가 있겠다。卽 6·25以前에 있어서는 大學體育의活動이 各種目共히 활발하였는데에 比하여 6·25後에 있어서는 大端히 萎縮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것이다。本是 大學의 運動選手는 年齡으로 보아 初步的인「테크닉」과 圓熟한 一般「플레이」가 充滿하여 彌氣있고 근기있는「플레이」를 하게되고、高校時節에 이미 基礎「트레이닝」을 하게됨으로 어떤 境遇에있어서는 水準이 尺度가 되는 習得한 後인지라 競技技術面에 重點을둔「플레이」를 하게됨으로 어떤 境遇에있어서는 大學의 體育이 활발하다고 하는것은 저울질하는 「팀」들을 恒時 威脅할 程度로높게 마련이므로 大學의 體育이 그國家 앞날의體育界는 저울질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體育은 恒常뒷받침되고 반드시 활발해야만 學體育의 그것은 正常的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6·25後에있어서는 앞서말한대로 대단히 萎縮되어있으니이는 大學體育의 非正常的인 애처로운 모습으로서나 이나라 體育界의 將來를 위해서나、배우 深刻하고도 슬픈 일이라 할수 없는 것이다。

6·25後의 大學體育界는 縮되어 버린 大學原因을 살펴보건데、그 初期에 있어서는 大學選手들이 「펜」과 銃과 칼을 잡아야 當時의 狀況下에서는 어쩔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年齡이 되면、일이었으나 차로 復活된 大學의 運動競技가 休戰이후 이르러서도 대부분 選手들은 學徒分의 優秀한 吸收되어 軍의 體育로 除되고 破壞되었다。

現下 大學體育의 實情이 이나라의 體育界를 「리-드」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體育界를 짊어지고 나갈 中堅選手들이 「엘리트」級이 되고 廢墟가 된 學園과 復舊와 再建에 있어서는 大學體育의 位置等에서 各 多角度로 論議될수 있겠지만、여기서는 大學이 어떠한 位置에 있어야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高校를 卒業할 選手들이 大學에 진학하고 不健全하여 非正常的인 狀態에서 벗어나기 爲해서는 多方面에서 努力할것이다。卽 高校를 卒業하는 選手들이 實業團으로 부터의 誘惑과 交涉에 응하지 않고 오로지 大學에 進學하여 高度한 技術을 갖추어 「에이스」로 나가야 한다는 高校選手 自身의 또는 實業團에서라든가 「스타」한 大學에서 「스카우트」하여야겠다는 것이다。

大局的인 見地에서 高校를 卒業할 選手들에게 대학에 진학하고 不健全하여 非正常的인 狀態에서 벗어나기 爲해서는 多方面에서 努力할것이다。卽 高校를 卒業하는 選手들이 實業團으로 부터의 誘惑과 交涉에 응하지 않고 오로지 大學에 進學하여 高度한 技術을 갖추어 「에이스」로 나가야 한다는 高校選手 自身의 또는 實業團에서라든가 「스타」한 大學에서 「스카우트」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體育의 恒常뒷받침되고 반드시 활발해야만 學體育의 그것은 正常的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6·25後에있어서는 앞서말한대로 대단히 萎縮되어있으니이는 大學體育의 非正常的인 애처로운 모습으로서나 이나라 體育界의 將來를 위해서나、배우 深刻하고도 슬픈 일이라 할수 없는 것이다。

6·25後의 大學體育界는 縮되어 버린 大學原因을 살펴보건데、그 初期에 있어서는 大學選手들이 「펜」과 銃과 칼을 잡아야 當時의 狀況下에서는 어쩔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年齡이 되면、일이었으나 차로 復活된 大學의 運動競技가 休戰이후 이르러서도 대부분 選手들은 學徒分의 優秀한 吸收되어 軍의 體育로 除되고 破壞되었다。

現下 大學體育의 實情이 이나라의 體育界를 「리-드」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體育界를 짊어지고 나갈 中堅

이런 밤에

尹世徹

中央廳 街道의 밤을 걸으면
燈은 추워 눈물 담고。

내 옆에서 悲鳴을달리는 文明이 있는데도
까아마득한 原始에서 나는
나는 어쩌자고 배곯으다。

思想이、政治가、革命이 歷史에 두
넋지고
그리고 봄인데
봄이되도 기어히 눈이 오드니…

어제는 憤怒가 타고
또 오늘은 데모가 喊聲친
壁은 걸어 景福宮을 싸았고
호리고、길고、또 길고 쩌른 내。
흉내 닮은 술한 몰골들이 닥아서며
疲困만 먹고 살아온 나를 히히 웃
어지곤 도망치는
담장은 그만 蒼白하다。

어머니 젖무덤에인듯 부비고 싶은
내 눈길에
저리도 이밤 꿈꾸는 裸婦의 굴(穴)은
원체 걷었을뿐
아하 望鄕보다 쓴 사랑은
손 안에서 영글고 <씨아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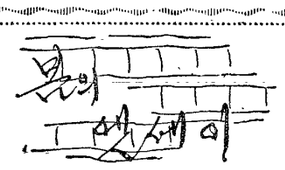
목놓여 보낸 방금의 계절에는
왈칵 피 솟게하는 孤獨이었다。

차마 서룬 仁旺山 밑
엄밀은 情은 아득한데

참 어이없게도 나는 끝 없을 垣을
빌려
사뭇 가래같은 오줌을 싸내고 싶었다。

—내 이런 밤의 얘기가 결코 누구
에게도 傳해져서는 나는 안된다。

<國文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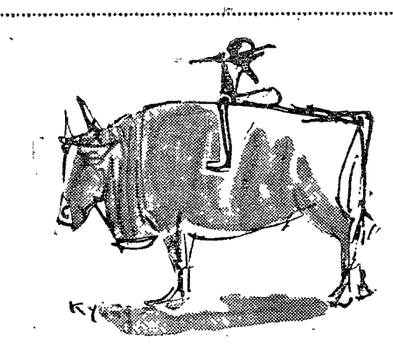


<2>

개미타나의 悲話

趙廷來

나막이 아는 노래
그이만이 들게 불
러보는 소리였는 곡
이 사랑이다。
봄날의 사랑을 생
각해 본다。 그것은
잔잔한 고궁
제 그림자를 비춰보
이며 꿈의 허황됨도
새철의 무정도、미워
하지 않고 파문을 일
구며 멀어지는 꽃잎
의 대화와도 같은것
을 말이다。 아니면
달빛에 포도가 살찌
가는、 그런 수줄음
덜힌 자정의 密語와
도 같은 것이다。
볼의 사랑은 太陽을
닮는다。
저리도 건강한 太
陽을 말이다。 太陽은
펄펄 타던서도 위태
롭지 않다。 머우기
공포는 있을 수 없
다。 불불기 전의 太
陽은 너무나 념처호
불안과 념전에
공포에 숨찬 몸부림을
는지도 모른다。 했었
너무 벅찬 몸부림
의 부대낌으로 저렇
게 太陽은 타고 있
는지도 모른다。 허지
만 몸부림에 미치고
피로움에 실신해도 불
붙지 아니하는 뻘거
숭이 살덩이의 사랑



孤獨

申允讚

송이 살로꽃을 꺾어
주저앉는 스스로를 말
하고 싶은 季節이다。
『이별과 눈물을 모
르는 사랑을』 그리고
時間이다。 그러나
하나 서러움을
이았다。 봄은 하나길
이 아름답다。 그러나
사랑은 너무나 많이
고신 뿔어져
연연에서 아쉬움
이란걸 읽었었다。 이
제 서러움도 배웠다。
기다림으로 기다리며
早春이라도 저 天命의 덤
다。 기다림은 읽어야겠
만을 잉태하는것이다。 처음부
人生을 정의하기만
끝까지 아름다움
고신 뿔어져
흰어지
는 연기에서 아쉬움
이 나는 이 이
이 二元性이 명
확한 二元性이
형태로 있다。 그때는
복잡성과 多彼性으로나
양상에 이해 있다。 또한
고 할수있다。 그런 대립적
니에서 不絕히 돕바구
찢기우며 緊張되던 민족의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것이 태도도 아직
지하다。 이것이 로서아

도스또엡스키의 非合理性과 二元性

그의 作品을 中心으로

金初惠

「도스또엡스키」는 自己 母國을 어떤 수수께끼에 쌓인나라라고 했다。 사람들도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白痴」 의주인공 「뮤쉬킨」 공작을 봉하여 이런말을한다。 「나는로서아라는 나라가 마치 말없는 古代 에집트의 「스핑그스」 와같은 기분이 들어온동 이해할수 없다。」